

(二十一) 位 次

奉 安 名 賢			奉 安 年 代
號	姓 名	諡 號	
靜 庵	趙 光 祖	文 正 公	崇禎七年 甲戌 (西紀 1634年) 十一月 日 奉安
退 溪	李 滉	文 純 公	同 上
東 浦	孟 希 道		崇禎七年 甲戌 (西紀 1634年) 十一月 日 配享
晚 全	洪 可 臣	文 莊 公	同 上
	李 舜 臣	忠 武 公	同 上
窓 巖	姜 鳳 壽		同 上
時 庵	趙 相 禹		崇禎六十五年 壬申 (西紀 1692年) 追配
雪 峰	姜 柏 年	文 貞 公	崇禎七十五年 壬午 (西紀 1702年) 追配
養 心 堂	尹 倪		同 上
梅 谷	趙 爾 後		崇禎九十年 丁酉 (西紀 1717年) 追配

(二十二) 創建通諭文

士首 趙 相 禹 著

우리의 道가 東方에 들어 온 것은 이미 오래 되었다. 道가 있는 곳에 思慕함이 또한 따르는 것은 世代의 先後나 地域의 遠近을 論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靜庵 趙先生과 退溪李先生은 비록 婦人이나 小子라도 모두 그가 大賢임을 알고 있으며 君子들은 비록 그분들의 足跡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라도 또한 可히 書院을 세워 享祀하므로써 後學들의 矜式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本郡의 南쪽 五里許의 紫霞洞 아래에 靜退라는 하나의 골짜기가 있으니 그 名稱을 곧 後學이 된 者가 어찌 尋常하게 보아 둘 수 있겠는가? 또한 그 地名을 因하여 그 분들을 思慕하여야 할지로다.

아! 이 하나의 작은 골짜기가 兩先生의 別號를 兼得하였으니 그곳을 [君子的 골]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나는 진실로 하늘이 지으시고 땅이 감추었다가 兩先生의 攸宅을 열어 놓았음을 알았도다. 區內的 小生이 兩先生의 道와 德을 推仰함은 泰山北斗과 같을 뿐 아니라 곧 이제 地名을 因하여 特別한 景慕의 精誠이 發하니 그것이 또한 根據가 있는 것인가? 根據가 없는 것인가?

生等이 昔年間에 嶺東과 嶺南 等地를 遊覽하면서 列邑의 書院들을 拜觀하였는데 江陵의 丘山書院은 魯나라의 丘山과 더불어 이름이 같았기 때문에 孔子를 思慕하였고 比安의 董山書院은 漢나라의 董仲舒의 姓과 더불어 같았기 때문에 董子를 思慕하였으며 星州의 川谷書院은 그곳에 伊川과 雲谷이 있는 故로 宋나라의 程叔子和 朱夫子를 思慕하였던 것이다. 伊川과 雲谷을 습하여 [川谷]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退溪先生이 定한바 이라고 栗谷先生이 말하였다. 그러한 즉 無心히 이름을 가진 者는 땅이로되 意味를 가지고 이것을 取하는 者는 人間이다. 人間이 이러하고 땅이 이러함은 古今이 없이 같다면 [靜退]라 함도 또한 [丘山]이나 [川谷]과 같은 類라 할 것이다.

아! 丘山이나 川谷이 모두 大聖과 大賢을 爲하여 베풀어졌거늘 내가 어찌 감히 이곳에 譬喩하고 論하여 그 着實處로써 이것을 말하겠는가? 곧 江陵의 丘山이 어찌 魯나라의 丘山이 될 수 있을 것이며 星州의 川谷이 또한 어찌 宋나라의 伊川과 雲谷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오히려 敢히 地名의 아름다움을 泛視하지 아니하고 學校의 밖에다가 또 書院을 세워서

私事로이 追慕의 精誠을 꺾거늘 하물며 靜庵·退溪 兩先生이 모두 나와 더불어 나라를 함께 했음에라 이에 아름다움을 지닌 地名을 더한다면 그것은 兩先生을 爲하여 追慕의 精誠을 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진실로 生等이 同志에게 發論하여 材木과 糧穀을 모아 書院建立을 圖謀한 所以인 것이다.

春三月에 始役하여 夏五月에 立柱하니 이것이 곧 兩先生의 祠宇이다. 그리고 그 從亨함에 있어서는 곧 晩全 洪先生이 兩先生의 後學으로 兩先生의 道를 欽慕하여 一生의 工程이 [誠·敬] 二字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그의 道와 德이 果然 어떠하며 昏朝(光海朝)에 致仕한 하나의 節操는 또한 學力의 喫緊處가 아님이 없다. 그리고 先生이 살던 땅은 비록 溫陽과 牙山 兩邑의 사이라고 하지만 所食의 땅인즉 實地로 弊郡에 있었으며 그의 遊觀하던 발자취는 앞에 말한바 紫霞洞의 靜退谷에 자주 미쳤으니 이것이 또한 生等이 景仰하여 兩先生에게 從享하려는 所以인 것이다. 多幸히 우리 明府의 誠篤·尊賢·義重·崇儒의 힘을 입어 諸生을 舞하여 그 事業을 經紀하였으나 役事는 巨大하고 能力은 不足하여 形勢가 홀로 이루기 어렵게 되어 그 中送에서 廢하게 되었으니 어찌 列邑의 諸賢에게 急히 告하지 아니하리오? 삼태미에 담긴 흙이라도 모으면 山을 이루고 졸졸 흐르는 물도 모이면 바닷물을 補充하는 것이니 옳드려 願하건대 諸賢께서는 한자의 布木이나 한 말의 쌀이라도 無論하고 萬分의 一이라도 補助하여 주신다면 다만 諸賢께서 先生만을 向慕하는 精誠과 義理가 깊고 懇切하였다고 할 것이 아니라 衛道의 事業에 있어서도 어찌 그 功을 적다고 하겠는가?

(二十三) 書院上 樑文

趙相禹著

道德이 높으시기 때문에 尊崇하여야 한다는 公共의 輿論이 이미 定하여졌고 地名으로 因하여 景仰하게 되니 私淑하는 마음이 자못 懇切하도다.

이에 마땅히 恭敬하여 億萬年の 模範으로 삼아야 할지니 어찌 한번 祠廟를 세우지 아니할 것인가?

이에 옛 白鹿洞書院을 본받아 이곳 紫霞洞을 選擇하였도다.

南쪽에는 雲臺가 우뚝하게 솟아 南極老人星을 볼 수 있고, 北쪽에는 溫井의 물이 솟아나와 小長安이 길이길이 열려 있도다.

하늘이 만드시고 땅이 감추어 두었다가 오늘날을 기다린 듯, 鬼神이 아끼고 保護했다가 그 사람에게 끼쳐준 듯

高官의 수레가 逍遙한 적이 얼마나 많았으며

英雄豪傑들의 빼어남이 몇몇이런고?

孝道와 友愛의 한 집안은 姜使君(姜麟壽·姜鳳壽)의 兄弟들이요, 旌閭를 세워 表彰한 두 분은 孟相公(孟希道·孟思誠)의 父子로다.

西達山 높고 높아 龍嶽의 巖巖함과 비슷하고

志同川 넓고 넓어 禮源의 潏潏함과 戴搖하도다.

聖學을 圖謀하여 저녁마다 恭敬하셨고 지난 일을 喻承하사 未來를 開拓하신 大功을 이루시며

마음을 箴戒하여 날로 새롭게 하사 齋家와 治國의 道를 아름답게 하셨도다.

兩先生께서 서로 가시던 그 境地는 곧 千百世의 스승이 다 함께 일컫도다.

오직 하나의 道를 이루시니 그 德에 薰陶되어 善하게 되며

君子는 그 자취를 接하여 賢哲이 된이가 몇몇이런고?

晩全이 이에 能히 在養을 다스리어 아울러 그 精工함을 이루시며 篤學하시고 力行하사 能히 實踐하시니 사람들이 진실로 賢明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能히 風化를 들으시며 清廉하시니 마음이 진실로 어질게 되었도다.

이에 대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쉬노라니, 철새들은 사람 때문에 또한 기쁨을 어찌하지 못하니 老杜의 詩를 읊조리노라. 땅은 어진 사람을 依支하여 다시 아름다와지니 新安의 縣에서 講說을 듣는 듯하도다.

谿谷이 진실로 이와 같으니, 能히 아름다운 稱號를 얻었으며
 威風을 欽慕함이 진실로 이와 같으니 참으로 祠宇를 建立할 機會로다.
 아! 李渤이 이미 가버렸으니 그 누가 教授하면서 隱居하리오?
 아깝도다! 宋君이 죽은지 오래니 그 누가 經典을 주어 지키게 하리오?
 多幸히 本朝의 列聖祖께서 서로 繼承하사 士氣의 培養을 爲先하시니
 마땅히 諸道의 各邑에서 한가지로 書院을 세우는 일에 크게 힘썼도다.
 오직 弊郡은 비록 많은 선비들이 홀로 賢人을 尊崇함에 어둡다고 하지마는 그것은 大缺이
 아니로다. 이에 二·三의 우리 무리가 길이 千秋의 血食을 圖謀하였도다.
 財力이 薄劣하니 迂儒의 웅졸한 計劃이었으나
 精誠은 깊고 義理는 重하니 明府의 큰 도움을 입었도다.
 左之右之하고 或來或布하며 日給月給하며 日軍日工하니 神鬼가 모든 것을 수레에 싣고 하늘
 로 부터 내려오니 木材와 石材가 모두 具備하였도다. 이것은 人間의 所爲가 아니며 簡擇할
 수도 없는 것이로다.
 眼界에 보이는 平坦한 風景은 十里에 환히 펼쳐 있어
 心地의 곧음을 秋毫도 숨기지 아니하도다.
 雅士 百餘人이 山속으로 돌아오기를 江陵의 丘山과 같이 하니
 아름답도다. 庇安의 董人과 같음이어!
 中華의 땅 밖에 있는 나라에서 特別히 義로써 일어나 이 일을 하였으니 或 後世에 태어나더
 라도 먼저 敢히 精誠을 다하여 欽慕하지 않겠는가?
 모든 들보를 이미 들어 올렸으니 六偉가 따라서 이루어졌도다.
 恪을 대들보 東쪽에 던지오니 (拋樑東)
 排芳山 저 멀리 碧空에 半쯤 솟아 있네. (排岳 癩遙半碧空)
 새로운 햇별이 솟아 萬壑을 밝히고자 하니 (新旭欲昇明萬壑)
 문득 文正公과 文純公께서 親灸하심인가 疑心했도다. (却疑親灸正純公)
 恪을 대들보 西쪽에 던지오니 (拋樑西)
 西達山 뿔부리는 하늘에 닿아 해는 수이 넘어가네. (達岵連天日易低)
 箇箇의 形容 속에서 뉘라서 恰似함을 얻겠는가? (箇裡形容誰得似)
 東國에 道가 높으신 이는 우리의 靜菴先生과 退溪先生이로다. (道高東國我菴溪)
 恪을 대들보 南쪽으로 던지오니 (拋樑南)
 山水의 風光이 그림도 같고 쪽빛도 같구나. (山水光如 籠與藍)
 終日靄도록 薰風이 그치지 않고 부니 (終日薰風吹不絕)
 虞舜이 앉아서 거문고 타고 계심을 비로소 알겠도다. (始知虞舜坐彈琴)
 恪을 대들보 北쪽에 던지오니 (拋樑東)
 바람부는 한 밤중에 山은 깊고 어둡도다. (風吹子夜山深黑)
 때때로 구름이 흩어져서 天光이 맑아지니 (有時雲散淡天光)
 앉아서 衆星이 北極星 앞에 다투어 拱手함을 보도다. (坐見衆星爭拱極)
 恪을 대들보 위에 던지오니 (拋樑上)
 天上의 十二樓閣이 얼마나 宏壯한고? (天樓十二何宏壯)
 長吉이 文章을 잘 한다고 世上에 傳하건만 (世傳長吉善爲文)
 오늘날에 骨相을 保全하였는지 알지 못하노라. (不識今朝保骨相)
 恪을 대들보 아래에 던지오니 (拋樑下)
 모든 물은 東쪽으로 흘러 暫時도 그치지 않도다. (群水東流不暫舍)

萬物의 原理는 盈虛일 뿐이니 어찌 얻음을 알리오? (物理盈虛那認得)

새벽부터 밤 늦도록 朗吟하도다. (朗吟明發至昏夜)

엎드려 願하옵건대 上樑한 後에는 天地가 매우 어질게 되고, 陰陽이 또한 順調로우며 雷霆으로써 舜하고 風雨로써 潤澤하게 하여 萬物이 各各 그 生成함을 얻어 春秋의 祭享에 牛羊의 紹牲을 쓸 수 있어 百代에 스스로 能히 悠久하며 忠臣·孝子가 群出하여 正士와 더불어 醇文을 서로 이어서 지으며 棟楹과 樑桶에 東海의 물이 지나가서 桑田으로 變化하고 垣牆과 罅除가 西達山과 함께 무너져서 溝竈이 되도록 우리의 道學은 오직 이 두어 분의 賢者에게 하나로 統攝되도록 하소서.

(二十四) 趙時庵先生書院從享文

書院諸生 李文榮 等 撰

恭敬하옵건대, 오직 先生은 天祐과 資質이 굳고 確實하며 志操를 홀리지 않고 善함을 보이며 萬若 惡한 것을 미워함에는 원수와 같이 하였으며 일찍이 義理를 깨달아 祿을 求함에 汲汲하지 않고 聖經에만 潛心하면서 自身을 反省하고 實質的인 것을 힘썼다.

德이 渾然하면서도 剛하였고 修身을 行하되 敦篤히 하여 前後의 國喪에는 葬前에 行素하며 참으로 깊이 임금의 抗禮를 引伸하여 잘못을 바로 잡았다. 그리고 兩親의 喪을 當하여는 六年間이나 廬幕을 지키면서 아침 저녁으로 피눈물을 뿌리며 울었고 몸이 衰弱하여 졌으나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忠孝를 兩全하였다고 하겠으며 古今에 이런 분은 한 사람 뿐이라 하겠다.

薦學하여 벼슬에 있었으면 經綸을 쌓을 수 있었을 것인데 世上과 더불어 맞지 않아 道로서 몸에 펼쳐서 빛을 머금은 채 自重하여 林泉의 한 區域에서 삼가면서 집을 지키며 兄弟間에 友愛하여 하나의 珍味가 있으면 반드시 가지고 가서 함께 먹으며 기뻐하였고 남들을 問與하지 않았다. 그러나 義理는 敦睦함을 나타내었고 仁慈하여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김에 넉넉히 하였다. 親舊가 喪을 當하면 힘을 다하여 서둘러서 禮文으로 救援하며 喪制에 紊亂하지 않게 具備하여 주었다.

百世에 威風이 펼쳐서 興起할 것이어늘 하물며 우리와 親함에 있어서라? 敢히 推仰함을 그치지 못하여 마침내 가르침을 받들기 願하여 띠풀을 베어내고 지름길을 열었더니 우리 무리가 不幸하여 喬嶽이 문득 무너지니 詞林이 恭敬할 곳을 잃었으니 道學의 根源을 누가 開拓하리오? 築室하여 喪禮를 行할새 子貢이 執紼을 저버린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고 恭敬하여 篋을 올려 겨우 曾鞏을 본받았으니 아! 슬프도다.

又

侍直 高 晦 撰

倚支할진저 先生이시여! 天姿가 빼어나시며 學問에 淵源이 있으시어 性情은 義理를 窮究하시었다. 빛을 감추시고 精을 기르시며 禮學을 講論하시고 易學을 익히시니 道學은 天人을 貫穿하셨고 德은 家國에 높으시었다. 文章으로 世上에 이름이 났으며 經傳을 發揮하시고 孝道와 友愛는 하늘에 이르르니 鄉里는 善을 따르게 되었다. 科擧를 보지 않고 詩를 지어 읊으며 上疎文을 올려 禮를 論하시었다.

顯宗大王께서 溫泉에 臨하사 旌閭를 命하시니, 義로움을 朝野가 欽歡하고 士林이 矜式하였다. 이 儒宮을 돌아보건대 函丈(스승)께서 設立하신 바이라이에 合享하는 盛禮를 舉行하여 景慕하고 千古에 泰山과 같이 敬仰하여 아름다운 香氣를 흐르게 하리라.

道學純篤士林尊師 遂庵 權尙夏 撰 時庵

身窮一時道享千秋 甲戌 靜庵

闡明吾道開詔後學 甲戌 退溪

院生 三十人 保直 十二名

(二十五) 壇 祠

力社稷壇：本郡의 西쪽 二里에 있다.

力嶮 壇：本郡의 北쪽 二里에 있다.

力城隍祠：燕山에 있다.

力社稷位版室 一間, 嶲鬼神飯室 二間

(二十六) 柳 宇

力過棧寺 : 本郡의 南쪽 十里에 있다.

力窟往寺 : 本郡의 南쪽 五里 西達山에 있었는데 지금은 廢寺가 되었다.

力南山寺 : 本郡의 南쪽 三里 西達山에 있다.

力木 寺 : 本郡의 東쪽 排芳山에 있었는데 지금은 廢寺가 되었다.

力巍岩寺 : 本郡의 南쪽 二十里에 있었는데 지금은 廢寺가 되었다.

力玄雨寺 : 本郡의 南쪽 二十五里에 있었는데 지금은 廢止되었다.

力中 庵 : 本郡의 南쪽 十里에 있었는데 지금은 廢寺가 되었다.

力石庵寺 : 本郡의 南쪽 二十里 松岳山에 있다.

力上 庵 : 本郡의 南쪽 十七里 廣德山에 있었는데 지금은 廢寺가 되었다.

(二十七) 樓 亭

力大清木

客舍의 東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力石友亭

本郡의 南쪽 五里 西達山 아래에 있다. 時庵 趙相禹가 浦渚 趙翼, 潛治 朴知誠, 愼獨齋, 金集, 槐淺 黃宗海 등과 더불어 學問을 講論하던 곳이다.

力閱勝亭

本郡의 南쪽 七里에 있다. 李嗣宗은 禮安人이니, 宣祖朝에 別提로 있다가 喪을 당하여 벼슬을 버렸고 華山의 南쪽에 亭子를 짓고 閱勝亭이라 扁額하였다. 簡易 崔笠의 記文과 詩가 있다.

力觀善齋

華山의 北쪽 巍岩山 아래에 있다. 泉西 尹滉과 巍岩 李柬이 이곳에 觀善齋를 짓고 서로 더불어 講學하였다.

(二十八) 題 詠

力石友亭 二首(時庵 趙相禹의 時)

水色과 山光은 내 집을 에워싸았고 (水色山光擁弊廬)

春風에 芳草는 뜰에 가득하구나. (春風芳草埭 庭除)

저 雨露를 따라서 점점 자라나리니 (從他雨露看看長)

아이들을 경계하여 호미질을 말라 하였노라. (戒爾 曹勿用鋤)

又

道義가 天下를 밝히지 못하니 (道不明天下)

내 將次 이 숲속에 늙으리라. (吾將老此林)

平生의 가슴 속에는 (平生腔子裡)

孔子·周子의 理學을 모으려는 마음 뿐일세. (理會孔周心)

力客舍 一首

崇禎 甲戌(仁祖 十二年 西紀 1634年) 暮春에 東岳 李安訥은 다음과 같이 詩를 읊었다.

東風을 따라 行하여 바닷가에 이르러 (行遂東風到海)

南쪽으로 수레를 몰아 들을 돌아서 班春에 屬했구나. (南轅轉 替屬班春)

들판엔 비가 개이고 비둘기 울음소리 급한데 (郊原雨霽鳩聲促)

마을엔 연기가 잠기고 버들빛은 고르구나. (里落烟沈柳色均)

아전들은 按察使의 巡行이 두려워 미리 다리를 떨며 (吏畏按巡先股慄)

백성들은 供給할 일을 근심하여 한가지로 눈썹을 찡그린다. (民愁供給共眉撇)

썩은 선비가 스스로 돌아보건대 아름다운 政事가 없으나 (腐儒自顧無佳政)

부끄러움을 봄철에 드러내어 닿은 곳마다 새롭게 하리 (羞見陽和觸處新)

(二十九) 祈雨排芳山文

하늘과 사람은 하나의 元理이니 참으로 만드시 느낌이 通할지라 곧 皇穹(하늘)에 告하여 아
되고자 하나 이에 位를 넘어 건너갈까 두려워 敢히 가운데를 지나지 아니하고 西쪽과 東쪽
의 鎮山에 달려가 祈禱하옵나니 밝으신 精靈께서 스스로 백성을 明耳 하게 하심이 마땅하옵
거늘 어찌하여 必必하게 始終을 생각하지 않으시옵니까?

돌아보옵건대 오직 봄철과 여름철은 農事철의 根本이오며 凡欲의 어리석은 이는 먹는 것을
하늘처럼 여기옵는데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어찌 다만 근심과 슬픔 뿐이겠옵니까? 하늘
에 있는 道가 또한 功을 이름에 이즈러졌다고 하겠나이다. 아! 옛날에 晏穗이 齊景分을 對
하여 한 말이 或 近似한 듯하지마는 實은 空論에 不過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듣자옵건대 옛날에 太初에는 朴蒙하고 嗟歎하여 混沌된 氣運이 凝結되고 鬱蒼하여
이 山川이 땅 가운데서 布列되었으니 다만 보기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뜻이 隆盛하
여 宇宙를 떠받쳐서 蒼蒼하고 叢叢하여 氣가 서로 오르고 내려서 하늘의 造化를 도와 준다
고 하옵더이다. 이제 不土가 荒廢하니 내물이 依支할 곳 없이 零落하였아오며 慘憺한 눈에
는 말라서 터진 논밭 뿐인데 몹시도 따가운 불벌만이 내리죄고 있나이다. 職務에 怠慢한 罪
는 비록 祝融(火鬼)에게 있다고 하지마는 能히 保佑하지 못하였아오니 神께서도 또한 한가
지로 하신 바입니다. 하물며 疲困하여 지쳐서 근심을 나누며 또한 九重宮闕도 마찬가지여서
백성들에게 臨함에 德을 闕하게 되고 나라에 報答함에 忠試함이

없음이지요? 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恭敬하여 謹慎하였으나 진실로 귀먹은 듯이 感應이
없으시니 외로운 百姓들이 무슨 罪가 있기에 이처럼 惡한 災殃을 내리시나이까? 國王께서는
大命을 거의 멈추시고 俯仰하시며 참으로 슬퍼 하시나이다.

願하옵건대 來日 새벽이 되기 前에 變化를 無窮히 하사 旱魃를 몰아 내 쫓는 일은 바람에게
付託하시고 雲雨를 일으키는 일은 龍에게 委任하사 穀苗로 하여금 發興하게 하사 豐年을 이
루어 주소서. 그리고 堯임금 時節의 平和로운 거리에서 老人들과 아이들이 즐겁고 기뻐서
舞하다가 어두울 때에 돌아와 진실로 恭遜하게 하시고 밝고 밝으신 우리 임금님께서 깊은
宮中에서 근심을 풀게 하소서. 碌碌하나마 이 땅을 지켜 造化神의 領地를 保全하여 公事의
餘暇에 거문고와 鶴을 즐기며 閑暇로이 靑峯을 對하게 하소서. 洋洋하옵신 神께서는 前日의
자취를 밟지 마시고 沛然히 膏津하사 農事에 陰 이 되어 주소서.

(三十) 人物

(1) 孟希道 : 孝子, 高麗의 修文殿 提學을 歷任하였고 朝鮮朝에 들어와서는 隱遁하고 벼슬하
지 않았다. 居喪할 때에 하얀 제비가 그의 廬幕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며 이 事實은 [三
綱行實]에 記錄되어 있다.

(2) 孟思誠 : 左議政을 歷任하였으며 居喪할 때에 하얀 제비가 그의 廬幕에 집을 짓고 살았
다고 한다. 그는 恒常 검은 소를 타고 다니며 玉笛을 불었으며 사람들은 孟古擲이라고 불렀
다. 이 事實은 [三綱行實]과 [海東名臣錄]에 記錄되어 있으며 [廉吏選]에 選入되었다.

(3) 姜麟壽 : 璵奉·廬幕에서 三年間 侍墓하였다. 宣祖 乙巳(西紀 1605年)에 그의 집에 旌閭
를 命했다.

(4) 姜鳳壽 : 正言·旌廬

(5) 李 峻 : 萬曆年間に 李夢鶴의 變亂을 當하여 賊의 檄文이 來到하니 卽時에 그 檄文을
가지고 온 使者를 斬首하고 곧 나라에 變亂을 上啓하였다. 亂이 平定된 後에 그 功을 特錄
하였으며 司評에 除授되었다.

(6) 高守精 : 旌廬

(7) 趙相禹 : 號는 時庵이며 齊陵參奉를 歷任하였고 嘉善大夫 吏曹參判兼同 知義禁府事 五衛都
摠府副摠管에 追贈되었다. 顯宗 乙巳(西紀 1665年)에 孝道로써 旌閭를 命하였고 肅宗 壬申
(西紀 1692年)에 道學이 높았기 때문에 溫陽의 靜退書院에 贈示되었다. 文元公 金長生의
門人이며 道學으로 世上에 이름을 떨쳤다. 元宗大王의 追崇에 對하여 그 잘못됨을 上疎하여
論하였으며 丁卯胡亂에 淸나라와의 講和를 反對하는 斥和議를 上疏하였다.

(8) 趙之柔 : 號는 處翁이며 秉節校尉로서 龍馬 衛 副司直을 歷任하였고 通政大夫 承政院 右承旨 兼經筵參贊官을 追贈하였다. 松江 鄭澈의 門人이며 宣祖朝에 文章과 學問으로써 司 評에 薦學되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隱居하였다. 時庵의 父이다.

(9) 趙爾後 : 號는 梅谷이며 相禹의 子이다. 顯宗大王께서 溫泉에 幸行할 때에 領議政 李景 奭이 賢孝의 行實이 能히 그 父親을 喻承하였다고 하여 後車에 그를 태워서 陳達하니, 敎官을 特除하고 또 書筵官에 任命하였으며 官은 同敦寧에 이르렀다.

(10) 趙爾杲 : 號는 達峯이며 相禹의 第三子이다. 文敬公 金集이 朝廷에 薦學하였으며 仁祖 大王과 孝宗大王이 昇遐하니 懷德縣監으로서 六年 동안의 服喪을 하다가 마침내 致命하였 다. 顯宗朝에 忠義를 嘉尙히 여겨 左承旨를 特贈하였으며 英祖 乙巳(西紀 1725年)에 旌閭하 였다.

(11) 尹大亨 : 坡山府院君 之任의 五代孫이다. 乙巳年(西紀 1665年)에 顯宗大王의 大駕가 溫泉에 幸行하였을 때에 本郡의 많은 선비들이 篤行과 純孝로서 薦報하니 方伯이 朝廷에 아 뢰어 社稷參奉을 特別히 除授하였다.

(12) 尹 根 : 號는 梅陰이며 光海君 때에 逆臣 李爾 瞻等의 罪惡을 特論하다가 渭原에 流配 되어서 謫所에서 卒하였다. 仁祖反正後에 特別히 褒賞을 내리고 都承旨를 追贈하였다.

(13) 尹 偁 : 號는 養心堂이며 孝行으로 贈職되었다.

(14) 高 義 : 復戶를 給與하였다.

(15) 鄭 信 : 私奴인데, 旌閭를 세웠다.

(16) 相 男 : 旌閭를 세웠다.

(17) 林右彦 : 孝行으로 復戶되었다.

(18) 显 溶 : 孝行으로 肅宗朝에 宣務郎 自如察訪을 贈職하였다.

(19) 李 束 : 號는 巍巖이며 文純公 權尙夏의 門人이다. 至孝로써 事親하고 性理學을 闡明 하니 肅宗朝에 諮議에 特拜되었으며 英祖朝에 經筵에 選~~科~~友되어 여러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마침내 卒하니 上監께서 禮官을 보내어 致祭하고 特別히 喪葬에 쓰일 모든 物品 들을 下賜하였다.

(20) 尹 箴 : 都承旨 根의 玄孫이며 文純公 權尙夏의 門人이다. 德行과 經術로써 世上에서 推仰하는 바 되었으며 肅宗 丁酉(西紀 1717年)에 溫泉에 幸行하였을 때에 道內의 經學之士 를 求하라는 御命이 내리니 權尙夏가 尹箴을 으뜸으로 薦學하여 明陵 參奉을 除授하였다. 己亥(西紀 1719年)에 文科에 及第하고 英祖 乙巳(西紀 1725年)에 持評이 되어 聖誣와 師誣를 分辨하다가 얼마되지 아니하여 京城에서 卒하니, 特別히 上監께서 悼惜하여 말씀하기를 "尹箴의 經術은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葬禮에 쓸 物品을 주어 反盾하도록 하리라."

하고 道臣에 命하여 葬需를 支給하였다.

(21) 柳世權 : 孝子로서 參判에 贈職된 獻民의 曾孫인데 至孝로 事親하여 肅宗朝에 孝行으 로 戶曹佐郎에 贈職되었다.

(22) 趙 氏 : 贈司僕正 訥의 딸이며 贈左承旨 孟喜의 妻인데 貫鄉은 楊州이다. 鄉堂에서는 孟孝婦라고 稱한다.

(23) 李 氏 : 林右彦의 妻이며 孝子 尙顏의 딸이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 지아버가 있으니 이 지어미가 있도다."

라고 하였으며 方伯이 林右彦의 孝行을 狀啓할 때에 함께 朝廷에 아뢰어 同時에 褒賞을 받 았다.

(24) 王 氏 : 孝女로서 旌閭를 세웠다.

(25) 丁 氏 : 孝女로서 旌閭를 세웠다.

(26) 李 氏 : 烈女로서 旌閭를 세웠다.

(27) 愛 切 : 烈女로서 旌閭를 세웠다.

(28) 尹 氏 : 烈女로서 李元彬의 妻이며 掌命 在謙의 딸이다. 現在의 聖上(高宗) 丁卯年(西 紀 1867年)에 朝廷에 아뢰어서 復戶되었다.

(新 增)

- (29) 鄭 嶸 : 字는 士潔이요 號는 北窓이며 溫陽人이다. 中宗 丁酉(西紀 1537年)에 司馬試에 合格하여 官은 縣監에 이르고, 墓는 楊州에 있으며 文集이 있다.
- (30) 鄭 濂 : 字는 君敬이요 號는 古玉이다. 司馬試에 合格하여 官은 敎官에 이르고 墓는 楊州에 文集이 있다.
- (31) 鄭之升 : 字는 子順이요 號는 叢桂堂인데, 벼슬하지 아니하였다. 七賢속에 들어가며 文集과 行狀이 있다.
- (32) 鄭斗卿 : 字는 君平이요 號는 東溟이니 文科에 及第하여 官은 禮曹參判弘文_閣提學에 이르고 吏曹判書를 追贈하였으며 文集이 있다.
- (33) 姜 籤 : 字는 公信이요 晉州人이니 贈領相 雲祥의 아들이다. 宣祖朝에 司馬試에 合格하고 文科에 及第하여 三司를 歷任하여 官은 大司憲에 이르렀다. 號는 秋月軒이며 墓는 懷德에 있는데 相國 李元翼이 墓誌를 撰하였다.
- (34) 姜鶴年 : 字는 子久이며 大司憲 籤의 아들이다. 司馬試에 合格하여 官은 掌命에 이르렀다. 號는 復泉이며 懷德 龍湖書院에 畔享되었다. 墓는 溫陽郡 一北面에 있으며 眉未 許穆이 墓碣銘을 지었다.
- (35) 姜 鎬 : 字는 京叔이며 掌命 鶴年의 아들이다. 顯宗朝에 司馬試에 合格하고 文科에 及第하였다. 三司를 歷任하고 官은 江原監司에 이르렀다. 墓는 溫陽郡 南上面에 있는데 眉未 許穆이 碑銘을 지었다.
- (36) 姜世龜 : 字는 重寶이며 監司 鎬의 아들이다. 肅宗朝에 司馬試에 合格하고 文科에 及第하였다. 三司를 歷任하여 官은 工曹參判에 이르고 廉謹選에 들었다. 號는 三休堂이며 懷德의 龍湖書院에 配享되었고 墓는 溫陽郡 南上面에 있다.
- (37) 趙爾重 : 字는 景冠이며 楊州人이니 時庵 相禹의 第二子이다. 顯宗 乙巳(西紀 1665年)의 溫泉幸行時에 大臣 李景奭이 賢孝之行으로써 能히 그 父親을 喻承하였다 하여 伯兄 爾後와 함께 遺逸에 올라 薦舉되어 寢郎에 特拜되었으며 後에 累職을 歷任하여 縣監에 이르렀다.
- (38) 趙鳴周 : 梅谷 爾後의 아들이다. 顯宗朝에 司馬試에 合格하여 參奉에 이르고 學行이 있었으며 喻母를 잘 섬겼기 때문에 朝廷에까지 알려졌다.
- (39) 趙鳴國 : 時庵 相禹의 孫子이며 號는 省庵이다. 家學을 喻承하였으며 七十歲에 父母을 爲하여 追喪하였다. 誠孝가 出天하였고 郡邑을 여섯 차례나 맡아 다스렸으며 清白하기 이룰데 없었다. 士林들이 孝廉으로써 朝廷에 아뢰었고 屏溪 尹鳳九는 그의 墓에 "溫如玉 清如水"이라고 銘하였다.
- (40) 李 氏 : 烈女로서 旌閭를 세웠다.
- (41) 莫 今 : 烈女이며 巫女였다. 自己의 살을 베어서 夫君의 病을 고쳤으며 繡衣(暗行御史)의 書啓에 因하여 崇愼 三丙辰(正祖 二十年, 西紀 1796年)에 特命으로 旌閭를 세웠다.

...끝...